

— <1면서 계속> —

### UC재학 한인학생

한인 학부생수를 캠퍼스별로 보면 UCLA가 1,6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바인이 1,610명, 버클리 1,397명, 샌디에고 1,266명, 리버사이드 906명, 데이비스 592명, 샌타바라 386명, 샌타크루즈 162명 등이다.

전체 학부생 당 한인 비율이 가장 높은 캠퍼스는 8.5%를 차지하고 있는 어바인이며 샌디에고가 6.6%로 2위, UCLA 6.5%, 리버사이드 6.4%, 버클리 5.9% 등 순이었다.

UC샌디에고는 한인 학부생이 전년도에 비해 122명(11%)이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한인 재학생이 적은 UC리버사이드와 UC데이비스도 전년 대비 각각 16%와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UCLA 한인 재학생은 1년전에 비해 4%가 줄어들었다.

### 불체자 ID카드 유효

뉴에즈 의원 사무실은 각 외국 공관이 별도의 신분증을 발행할 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고려 디자인과 수록된 신상정보가 표준화되고 위조 방지 장치가 부착된 신분증이 사용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며, 거주 경찰총장 사무실의 협조 하에 외국 공관 발행 신분증을 위조한 범법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을 수정 강화해 예상되는 가짜 외국 공관 신분증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피고인 제임스 강(왼쪽부터 두 번째)씨와 로널드 황씨(세번째)가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정에 나와 참고인 진술을 듣고 있다. <홍재철 기자>

## 비디오업주 김진씨 살해혐의 용의자 2명 배심원 재판

지난해 5월 LA한인타운 6가 한국비디오 업주 김진씨 살해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강(21)씨와 로널드 황(22)씨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8일 열렸다.

데이빗 민츠 판사 주재로 LA 수피리어법원 118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강씨와 황씨가 양복차림으로 출두했으며 가족 10여 명도 자리를 지키며 검찰 측이 채택한 참고인 증언을 경청했다.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김모씨가 증언대에 오르자 메이 청 검사는 증인을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과 총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용의자 사진과 현장 지도 등을 토대로 집중 심문을 벌였으며 피고측 변호인들은 이에

반박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3일 새벽 LA한인타운 6가 영동

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갱단으로 추정되는 한인 청소년 한 명이 총기를 난사, 비디오 업소를 뚫고 들어온 총알에 업주 김진씨가 맞아 숨진 사건으로 피의자 강씨와 황씨는 지명 수배된 후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했다.